

광주극장 영화제

개관 81주년 기념 14~31일  
저장전·미개봉작 등 총 21편  
순간판 상판식·토크쇼 등 다채

‘다양한 영화를 만나다.’

전국 유일의 단관 극장 광주극장이 탄생 81년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개관 81주년 광주극장 영화제’를 개최한다. 영화제 기간 중에는 모두 21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순간판 상판식, 토크쇼, 북페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마지막 날에는 짐스 타일 재즈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재즈 트리오 ‘Yakeen’ 공연도 열린다.

개막작은 광주에서 꾸준히 영화제 작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윤수안·조재형 감독의 유니버스 영화 ‘광인’이다. 작품은 5·18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홍어의 맛’, ‘따도는 땅’ 두 편으로 구성돼 있다. 정경아·박규상·김호준씨 등이 출연한다.

14일(오후 2시)에는 광주극장 간판쟁이 박태규씨가 그린 ‘광인’ 순간판 상판식과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상영작은 프랑수와 트뤼포, 미

켈란젤로 안토니오니, 크뤼슈토프 키에슬로프스키 등 세계 영화사의 명감독들과 클린트 이스트우드, 브라이언 드 필마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감독들의 초기작과 근작을 만날 수 있다. 또 국내 미개봉작들도 만날 수 있다.

▲거장들을 만나다  
문학평론가 김형중(조선대 교수)씨와의 토크쇼와 함께 진행되는 ‘400번의 구타’(1959)는 프랑수아 트뤼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자 세계 영화사의 기념비적 걸작으로 불리는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양은 외로워’라는 제목으로 개봉돼 흥행에 성공했던 알렉 들롱 주연의 ‘일식’(1962), 19세기 가리발디가 이탈리아를 통일하던 시기의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쇠락해가는 귀족들의 모습을 그린 루치노 비스콘티의 우아한 시대극 ‘레오파도 II’(1962)도 놓치기 아까운 작품이다.

폴란드 거장 키에슬로프스키 감독 영화는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1988)과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1988), ‘베로니카의 이중생활’(1991) 등 3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배역을 맡아 남북전쟁의 실상을 묘사한 모던 웨스턴의 걸작 ‘무법자 조지 웨일즈’(1976), 아피차푼 위라세

타쿤의 ‘찬란함의 무덤’(2015)도 만날 수 있다.

▲인기작을 다시 보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도 다시 관객을 만난다.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 맥스(1979)는 인기절정 ‘매드 맥스’ 시리즈의 첫번째 작품으로 멜 깁슨의 젊은 시절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며 케네디 암살 사건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연상시키는 브라이언 드 필마의 ‘필사의 추적’(1981)이 상영된다. 유쾌한 ‘고스트 버스터즈’는 1984년 버전과 2016년 버전을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페미니즘 영화의 아이콘이 된 지나 데이비스와 수잔 서랜드의 ‘델마와 루이스’(1991)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그밖에 한 남자의 사진 만들기 프로젝트를 따라가는 일본 영화 ‘행복한 사진’도 관객들을 만나며 상영날에는 ‘북페어’도 열린다.

▲미개봉작을 만나자

구로사와 기요시의 아름다운 판타지 멜로 ‘해안가의 여행’(2015), 68회 칸 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 대상 수상작인 ‘렘스’(2015), 2017년 사망 100주기를 맞는 에곤 실레와 그가 사랑한 세명의 여자 이야기를 다룬 ‘에곤 실레-욕망이 그린 그림’ 등이 대가중이다.시간표 확인.

cafe.naver.com/cinemas-wangju.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

작품마다 예술이네



박진현의 문화카데

프랑스 파리의 북쪽에 위치한 오베르 쉬르 우아즈. 우아즈 강가의 오베르라는 뜻의 아담한 마을에 들어서자 ‘오베르주 라부’(Auberge Ravoux)라는 간판이 선명한 3층 건물이 눈에 띄었다. 네덜란드 출신의 인상파 거장 반 고흐(1853~1890)가 세상을 떠나기 전 79일간 머물렀던 여관이다. 당시의 모습을 간직한 1층 카페와 고흐의 작품들을 모티브로 제작된 2층 기념품점, 하루 3프랑씩 세를 내며 거주했던 3층 다락방은 파리가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하고 있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라부 여관을 찾는 이유는 꼭대

다 가족들을 일꾼에 떠나 보낸 후 이곳에서 슬픔과 고독을 달래며 창작의 불꽃을 피웠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보낸 수십 여 편의 편지에는 그의 예술이 그리움의 미학으로 가득함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저택이나 사원같은데 천장이며 벽에다 온통 그림을 그리고 싶어. 먹을 것만 준다면 말야.” 얼마 전 막을 내린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 전시된 편지는 그의 불운했던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 관람객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한 세기가 흘렀지만 예술가들의 삶은 여전히 각박하고 고달프다.

반 고흐와 이중섭

기층에 자리한 다락방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빼적거리러 나무계단을 오르면 볼 수 있는 7㎡ 규모의 허름한 방에는 초록색 나무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고흐는 이 방에 캔버스를 걸쳐 놓고 그림을 그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혼을 불태웠다.

실제로 그는 이곳에서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100여 점의 작품과 편지 600통을 남겼다. 하지만 작품 판매는 든든한 후원자였던 동생 테오가 구입했던 그림 1점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궁핍했던 삶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오베르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오베르 성당’과 ‘밀밭의 까마귀’가 불후의 명작으로 큰 울림을 주는 것도 사선을 넘나든 고흐의 결실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의 초라한 방과 무덤을 둘러본 순간, 고(故) 이중섭 화백(1916~1956)의 제주도 단칸방이 오버랩됐다. 1951년 6·25통란을 피해 제주도 피신은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

최근 광주전남연구원 발표된 ‘광주 예술인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역 예술인 10명 중 6명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중 5명은 생계유지를 위해 예술 활동 이외의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0명 중 3명(29.7%)의 연간 소득이 999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예술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경력단 절경현황이 50.2%에 이른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 붓을 쥐는 예술인들이 많다는 얘기다.

가난은 예술가의 수명이라고도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이 없는 사회는 불행하다. 모름지기 예술이 융성하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면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 발명이를 찾아 작업실을 떠나는 예술가들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문화적 허기’도 커지기 때문이다.

<편집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 동구 ‘2017 문화재 야행(夜行)’ 선정

광주시 동구가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2017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 18선에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11일 지난 6~8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모한 총 44건의 사업 중 ▲콘텐츠 우수성 ▲사업 홍보성 ▲사업 발전성을 고려해 13개 시·도 18개 사업을 선정·발표했다.

2017년도에는 올해 선보인 ‘피란수도 부산야행’ 등 10건을 비롯해 동구 ‘빛고를 달빛걸음’, 서울 성북구 ‘마을 속 문화재, 성북동 야행’, 인천 중구 ‘인천 개항장-밤마실’, 경기도 수원시 ‘밤빛 품은 성곽도시-수원야행’ 등 8개 사업이 추가됐다. /김용희기자 kimyh@

이야기 듣고 들으니 클래식이 쏙쏙~

내일 한희원미술관 조현영 ‘피아노 토크.’ 출간 기념 음악회

피아니스트 조현영씨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와 연주가 어우러진 ‘피아노 토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조현영의 피아노 토크-클래식을 즐기는 여섯가지 방법’을 펴낸 조씨가 출간 기념 음악회를 연다. 13일 오후 8시 광주 양림동 한희원미술관.

이날 행사는 조씨가 클래식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연주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첼리스트 윤소희씨가 함께한다. 레퍼토리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쇼팽 ‘즉흥 환상곡’,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 2악장 등으로 책에 소개된 곡들이다.

책은 만화 영화, 문학, 그림, 공간 등 6가지 테마, 60곡을 통해 독자들에게 다양한 클래식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남대 출신으로 독일 쾰른, 라이프치히 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마흔살들을 위해’ 등을 주제로 모두 6차례 진행한 다. 문의 010-5772-9255, 062-653-54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클래식음악감상실 다락, 서울 김담서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클래식 토크를 진행해왔다. 또 예술가의 기획 ‘아트 앤 소울’ 대표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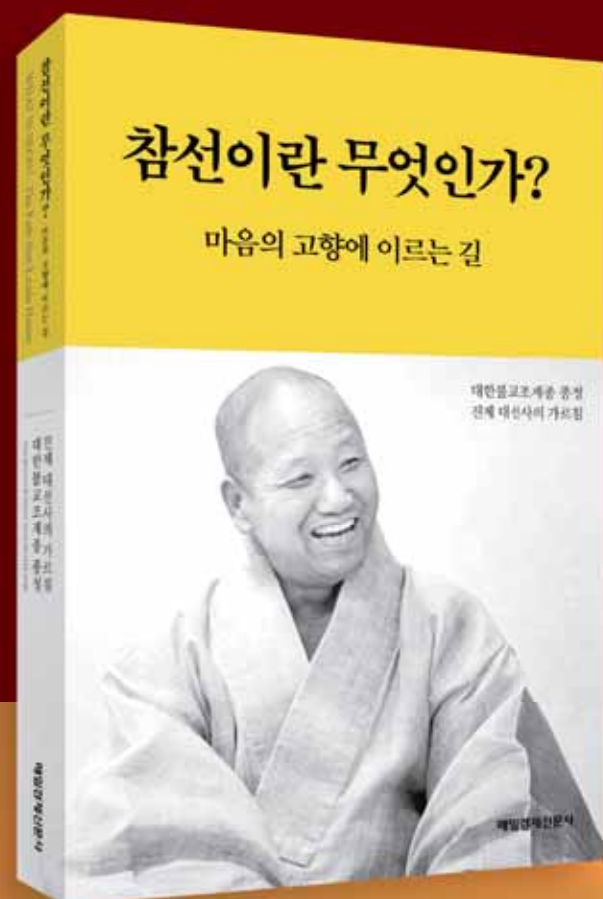
한편 조씨는 최근 제일기획 부사장 최인아씨가 강남에 문을 연 ‘최인아 책방’에서 ‘조현영과 함께하는 최인아 책방 콘서트’도 연다. ‘고민이 깊어지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대선사가 한글과 영문으로 전하는  
삶의 지혜와 참된 행복의 메시지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깊이로다.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모든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밝히는 참선수행을 합시다.”

“이 책은 오늘 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소중한 양식을 부담 없이 얻을 양서라 아니 할 수 없다.”

-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진제대선사는 한국대선사로부터 부처님법을 인가받아 경허-해월-운봉-향곡대선사로 전해 내려온 정통법맥을 이음. 석가여래부촉법 제79대법승. 현재)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지금 | 진제 대선사 | 가격 | 16,000원 | 팔공총림 동화사 | 053)980-7903 | 해운정사 | 051)746-2256